

안녕하세요. 경력직 지원자 조재연입니다.

2018 년 3 월부터 키움증권 모바일운영팀 소속으로 메인 매체인 국내 주식 APP '영웅문 S' 운영을 약 1 년 9 개월 진행하면서 고객분들이 가장 많이 사용하는 주문과 잔고를 담당하였고 자연스럽게 고객분들의 문의를 많이 받으며 기술 리뷰 및 원격응대 진행하면서 고객의 니즈를 파악할 수 있었고 항상 어떻게 하면 클린 코드를 작성하여 운영을 안전하게 할 수 있을지 생각하며 개선을 했습니다. 이러한 경험을 통해 핫픽스 이슈대응에도 앞장서서 해결했습니다.

이후, 좋은 모습을 보이며 사원이라는 직급에도 불구하고 '영웅문 S K-OTC 및 코넥스 개발'이라는 프로젝트의 PL 직책을 맡게 되었고 처음 하는 프로젝트인 만큼 열심히 프로젝트원 일정 관리와 마스터파일 파싱 및 K-OTC 및 코넥스 잔고 등 개발한 결과 기존 공수보다 2 개월 앞당겨 오픈하게 되는 성과가 있었습니다.

다음으로, 신규 앱 개발인 '저축은행 프로젝트'를 진행하게 되었고 처음으로 기존 SVN 방식의 형상 관리가 아닌 Git 을 사용한 형상 관리와 안드로이드에서는 Kotlin 을 사용하여 웹 <-> 앱 통신 브릿지와 다양한 라이브러리를 포팅하며 네이티브 개발 능력과 프로젝트 특성상 웹팀 및 외부 업체와의 만남이 잦아 협업 개발을 향상시킨 계기가 되었습니다.

그리고 키움증권 주력 매체인 영웅문 S, 자산관리, 영웅문 SF+, 영웅문 SG 4 개의 매체에 오픈뱅킹 기능을 추가하는 프로젝트를 진행하면서 같은 기능을 4 개의 매체에 적용하는 프로젝트인 만큼 시간상으로 촉박하여 하나의 매체를 먼저 개발한 뒤 단위 테스트한 모든 케이스를 수집해 다음 매체 개발할 때 같은 방법으로 테스트하여 같은 이슈가 나오지 않도록 하였고 그 결과 짧은 시간에도 불구하고 안정적으로 운영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.

마지막으로 키움증권 통합 MTS 플랫폼인 영웅문 S#에서 파트장을 맡으며 국내주식 메인 주문화면, 해외주식 메인 주문화면, 주문, 호가, 잔고 관련 공통 프로세스, 웹 <-> 앱 안드로이드 네이티브 개발을 하였고 더 나아가 앱 안정성을 위해 호가 및 잔고 속도 개선 후 운영을 하면서 파트원들의 코드리뷰와 화면배포를 통해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유지보수를 하여 그랜드 오픈 이후 리뷰 및 게시판을 통해 고객분들이 만족할만 성과를 보였습니다.

이러한 다양한 프로젝트의 개발 및 운영 경험과 PL 및 파트장 경험을 통해서 기여할 수도 있고 새로운 기술들도 배울 수 있다는 생각이 들어 지원하게 되었습니다.